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⑧ 다구의 변화

시대 변화 따라 다구도 함께 변모했다

다사(茶事)에 사용되는 도구를 다구(茶具)라고 한다. 글자 그대로 '다사'란 찻잎을 따고(采茶) 차를 만드는 것(製茶)에서부터 차를 보관(藏茶)하고, 차를 내어 마시는 행다(行茶)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일들을 뜻한다. 따라서 다구는 제다(製茶)와 탕법(湯法), 차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인식 등 시대별 다사의 흐름에 따라 그 범위와 종류가 달랐다.

가장 먼저 다사를 집대성해 차에 대한 모든 기준을 세운 당대의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다구와 다기(茶器)를 각각의 조목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육우가 정의한 '다구'는 차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기물이다. 그는 채다 할 때 갓 따낸 찻잎을 넣어두는 광주리, 찻잎을 쪄서 익히기 위한 솥과 시루, 쪄낸 찻잎을 빻아 모양을 내는 데 쓰이는 절구와 모양 틀, 모양 낸 차 덩이를 말리고 보관하는 시렁과 저장고 등을 다구로 분류했다. 이는 육우가 제창한 덩이차(餠茶)의 제다 과정에 필요한 기물이기도 하다.

반면 차를 끓여 마시는 행다의 과정에 쓰이는 것들은 '다기'라 하여 물을 끓이기 위한 화로와 솥, 숯바구니, 차를 가루내고 곱게 내리는 다연(茶碾)과 체(茶羅), 차 덩이를 집거나 찻 가루를 휘저어 거품을 내는 데 사용하는 집게와 젓가락, 찻 가루나 탕수를 뜨는 용도의 수저와 국자, 물과 소금을 담는 그릇 등 다양한 도구와 기물을 나열했다. 이는 덩이차를 마시기 위한 자다법(煮茶法)에 활용되는 재료나 기물의 구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당대 육우는 다구의 범위를 다사 전반에 걸쳐 넓게 다루면서도 제다와 행다(行茶)의 과정을 구분하여 덩이차의 제다와 그것의 탕법인 자다법에 필요한 도구를 정리했다.

덩이차의 시기를 지나 단차(團茶)가 유행한 송대에 이르면 '다구'의 범위가 당대에 비해 축소된다. 북송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휘종(徽宗)의 〈대관다론(大觀茶論)〉과 남송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茶具圖贊)〉에는 완성된 단차를 말리고 보관하는 기물을 비롯하여, 침추(砧椎)와 다연, 다마(茶磨)와 같이 단차를 가루내기 위한 분쇄 도구, 물을 끓일 탕병(湯甁), 차 거품을 내는 격불(擊拂)용 다시(茶匙)와 다선(茶筅), 다완 등 단차의 점다 과정에 쓰이는 기물의 종류가 다구로서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송대에는 풍성하고 밀도 높은 거품을 피워내는 것이 좋은 차의 기준이었다. 때문에 다시, 다선과 같은 격불 도구뿐만 아니라 차를 더욱 곱게 가루내기 위한 다양한 분쇄 도구가 새로 등장하고 중요하게 부각됐다. 그 중에서도 다연은 약재를 분쇄하는 약연(藥硏)과 유사한 형태로 자다법, 점다법에 모두 사용됐다. 침추는 차 덩이를 다연에 갈기 전에 1차로 부숴주는 도구로서 단차를 넣고 막대(공이)의 머리를 금속 망치로 내리쳐 차를 쪼갠다. 다마는 이름 그대로 차를 가루 내는 전용 맷돌이다.



송대 심안노인의 다구도찬도

宋代, 격불 · 분쇄 도구 중요하게 부각
명 · 청대엔 솥이나 다관 중요성이 커져
음용 방식에 따라 다구도 함께 변화해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송대부터는 채다를 포함한 제다의 과정에 사용되는 기물이 다구의 범위에서 빠지게 됐음을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다'와 '행다'의 공정은 각기 세밀하고 정교하게 발전했는데, 이에 따라 이 두 과정을 포괄하던 다구의 개념이 '행다'에 집중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차의 품질을 평가하고 겨루는 품다(品茶)와 투다(鬪茶) 문화가 발달하면서 행다의 과정에서 차의 색, 향, 미를 극대화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됐고 이에 적합한 다구의 사용을 중시하게 된 것이다.

반면 명·청대에는 채다한 잎을 그대로 말리고 덖어서 만든 산차(散茶)가 유행했다. 산차의 음용방식인 포다법(泡茶法)은 끓인 물을 다관(茶罐)에 부어서 찻잎을 우려낸 뒤 찻잔에 따라 마시기 때문에 찻잎을 잘 우려내는 것이 좋은 차의 기준이었다. 전대에 비해 행다의 절차나 다구의 구성은 간소해졌지만, 물로써 차의 향을 발현시키는 것이 중요했던 만큼 '물을 끓이는 최적의 온도'와 '차가 잘 우러나는 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이뤄졌다.

이에 명·청대에는 물을 끓이는 솥이나 탕관(湯罐), 그리고 끓인 물을 담아 찻잎을 우려내는 다관(茶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차를 우리기에 가장 적절한 다관으로 부상한 것은 의흥(宜興) 지방에서 생산된 자사호(紫砂壺)였다. 미세하고 부드러운 니질(泥質)의 자사(紫砂)로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성형이 용이하여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작품들이 생산됐는데, 청대로 갈수록 차의 맛과 향이 흩어지지 않도록 작은 크기를 선호했다.

차는 오랜 세월 널리 사랑 받아온 음료이지만 시대마다 그것을 제다(製茶)하는 방식이나 음용방식은 조금씩 달라져 왔다. 이러한 변화와 차이는 시대별 다구에도 반영이 됐다. 제다 방식의 변화로 차의 종류가 바뀌면 그 차를 행다(行茶)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다구의 종류와 구성, 쓰임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다구들은 그 시대의 다사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거나 새로이 개발됐다.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바르게 정화하는 정신음료라는 차의 본질은 언제나 동일하다. 그럼에도 차의 제다에서부터 그것을 음용방식과 이를 위한 다구들이 계속해서 변모해온 까닭은, 아마도 차의 본질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그 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⑯

1. 다음 중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삼보(三寶)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불보, 법보, 승보
② 경장, 율장, 논장
③ 계율, 선정, 지혜
④ 불상, 법고, 범종
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해설 : 삼보는 불자들의 믿음의 대상인 세 가지 보물을 일컫는 말로, 불보(부처님), 법보(가르침), 승보(승가, 스님)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처님의 전도선언으로 틀린 것은?
① 두 사람씩 짝지어 전도를 떠날 것
②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법을 전할 것
③ 법을 전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줄 것
④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할 것
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전할 것

해설 :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3. 다음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은?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의 (a)와/과 (b)을/를 위하여, 세상을 연민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마라.

① a : 행복 - b : 극락
② a : 이익 - b : 안락
③ a : 열반 - b : 해탈
④ a : 이익 - b : 깨달음
⑤ a : 평화 - b : 사랑

해설 :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다.

4. 문제 4의 지문에서 표현된 내용을 무엇이라 하는지 알맞은 제목을 고르면?
① 행복선언 ② 평화선언 ③ 안락선언 ④ 전도선언 ⑤ 자비선언

해설 : 비구들이 떠나야 하는 것은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5. 부처님이 가야산 꼭대기에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설법했을 때, 그 타고 있는 불이 상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탐욕의 불
② 분노의 불
③ 고뇌의 불
④ 승리의 불
⑤ 어리석음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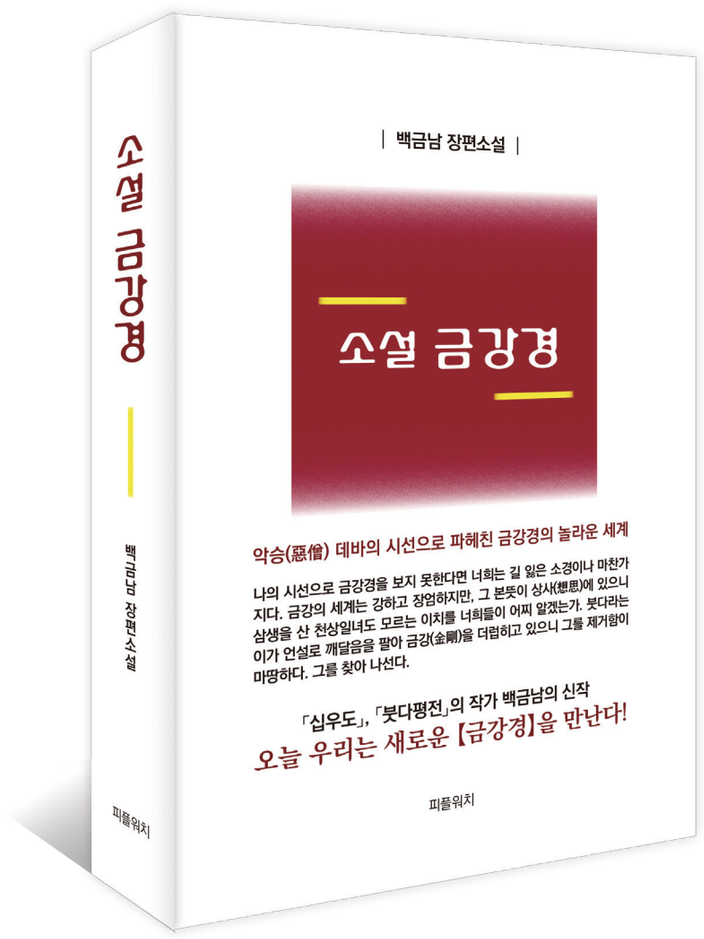
해설 : 가야산에서 불을 신성시하던 가섭 삼형제에게 부처님께선 불을 고통의 성격(탐욕, 분노, 고뇌, 어리석음)으로 비유하시어 그들이 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

6.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시자이자 가장 많은 법문을 들은 제자이다.
② 수보리는 해공(解空) 제일이며, '공(空)'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한 제자이다.
③ 두타제일은 원리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한 가섭 존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④ 데바닷다는 부처님 열반 직후 거행된 결집에서 율을 암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⑤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다.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은밀하게 스스로 행할 바를 실천하여 밀행(密行) 제일이라 한다.

해설 : 데바닷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대악인으로 부처님을 해하고 자신이 불교교단을 통치하려 하였다. 부처님의 생전에 이미 지옥에 떨어졌다.

정답 : 1. ① 2. ① 3. ② 4. ④ 5. ④ 6.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소설 금강경

깨달음을 비우고 벼락처럼 깨침을 얻는다!

「십우도」, 「붓다평전」의 작가 백금남의 신작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금강경】을 만난다!

악승(惡僧) 데바의 시선으로 파헤친 금강경의 놀라운 세계

나의 시선으로 금강경을 보지 못한다면 너희는 길 잃은 소경이나 마찬가지다. 금강의 세계는 강하고 장엄하지만, 그 본뜻이 상사(想思)에 있으니 삼생을 산 천상일녀도 모르는 이치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는가. 붓다라는 이가 언설로 깨달음을 팔아 금강(金剛)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를 제거함이 마땅하다. 그를 찾아 나선다.

저자 백금남 | 값 18,000원

피플워치 02-352-3861

천하의 지식인이여,
내게 와서 물으라
– 탄허 큰스님 이야기 –



백금남 지음

신국판 533쪽 | 피플워치 | 값 26,000원

화엄학의 종장으로서 특히 예언에 밝았던 탄허당 택성 대종사. 작가는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한 스님의 일생을 추적하면서 왜 그가 화엄학에 그토록 몰두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수많은 그의 예언들... 그것이 허명에 의한 술(術)의 경지가 아니라 도(道)의 경지에 입각한 것임을 깨닫는다.

사람들은 오늘도 묻는다. 스님, 자신의 종명일까지 예언하셨다면서요? 종명일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갈 해, 갈 날, 갈 시'까지 예언하셨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역사의 질곡마다 해왔던 예언들.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월악산에 달이 떠오르고, 젊은 지도자는 성냥갑 놀이를 할 터인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예언에 초점을 맞추리라. 그것이 세상의 인심이다. 혼돈의 시대, 당위의 미래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화엄승의 희망을 이해하기 어려울 테지만 그러나 그 인심 속에 희망이 있다. 바람 속의 꽃이 역사기 되듯이 화엄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리라는 희망이 있다.